

- **2026 년 7 월 속회**

1. **환영과 인사:** 속장
2. **찬송:**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새 212 장/통 347)
3. **시작하는 기도:** 속원 중
4. **감사의 고백과 나눔:**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 하나님께, 가족과 속원들에게 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5. **성경읽기: 마가복음 9:30-37**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열두 제자를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6. **본문의 내용**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수난 예고)과 그 직후 누가 더 큰지를 두고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 갈릴리를 지나실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이는 대중적 사역보다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이해하지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메시아가 고난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로마를 무찌르고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치적 메시아관과 완전히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예수님은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며 서열 다툼을 벌인 것을 책망하십니다. 당시 헬라-로마 사회나 유대 사회는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혁명적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노스'(diakonos)는 식탁에서 시종드는 종을 뜻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법적 권리나 사회적 지위가 전혀 없는, 가장 낮고 소외된 존재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력한 존재를 환대하는 것이 곧 자신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임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지위가 아니라 '낮아짐과 환대'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7. 나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돌아볼 때 일터나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은근히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거나 높아지고 싶었던 순간, 혹은 남과 비교하며 자존심 상하고 속상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삶'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삶의 자리(가정, 일터, 교회 등)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한 가지만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8. 합심기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속장이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9. 주기도문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속회 모임을 마무리합니다.